

금리 또 오르나...영끌족 '안절부절'

고금리 장기화에 이자 부담 커져·거래 절벽

추가 인상 단행하면 영끌족 매물 출회 늘어날 전망

“치솟는 금리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막막합니다.”

집값이 급등했던 재작년 초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받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박모(37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 때 6억원까지 오른 집값이 현재 4억원대로 다시 떨어지면서 고민 끝에 급매로 집을 내놔지만,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박씨는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했지만, 금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면서 지금은 후회한다”며 “금리가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시중 은행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투자한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 급등 시기에 이른바 ‘패닉바

잉’(공황구매)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대출 이자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내놓아도 사라는 매수자가 없다 보니 ‘진퇴양난’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를 넘어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지난달 3.82%로 전월 대비 0.16%p(포인트)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금융채 5년)는 4.14~6.584%로 나타났다. 변동금리(코픽스 신규)는 연 4.53~7.116%로 이미 7%를 돌파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자기 집을 소유한 20·30대 연령층이 전년보다 12만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족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미만 주택 소유자는 27만 4000명, 30대는 154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각각 1만 7000명, 10만 6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대 미만 주택 소유자는 25만 1000명으로 2년 새 4만명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했다. 30대 역시 164만명대를 유지하다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금리 기조로 20·30대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총 3367건으로, 전달(3860건) 대비 약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3188건)부터 3000건을 웃돌던 거래량이 지난해에는 1923건으로 주저앉았다.

아직 신고 기간(30일 이내)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났겠지만, 3000건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에선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족들의 매물 출회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8%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느낀 영끌족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잇단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부터 이자까지 부담이 커진 영끌족이 늘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노후 가구 최소생활비 ‘월 251만원’

은퇴나이 평균 55세...노후 적정생활비 월 369만원 조사

한국에서 평균 55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노후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가구의 생활비로는 월 2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 가 나왔다.

KB금융그룹은 26일 KB골드라이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구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35.7%)과 경제력(30.1%)을 꼽았다. 은퇴 전 가구(35.2%)보다 은퇴 후 가구(40.7%)가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1인가구(31.3%)는 부부가구(29.0%)보다 경제력을 중요 요소로 꼽았다.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연금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주된 일자리가 있는 현역가구와 부부 중

1명 또는 2명 모두가 주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반퇴가구 모두에서 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역가구 중 연금을 보유한 가구의 34.4%, 반퇴가구 중 연금을 보유한 가구의 24.3%가 노후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6세였다. 하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5세로 10년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과반(52.5%)을 차지했다.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비용인 최소생활비는 월 251만원으로 조사됐다.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 여행, 여가 활동, 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적정 생활비로는 월 369만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금형인’ (주)에스디엠 조철연 대표

광주시 ‘금형인의 날’ 개최...경쟁력 강화 적극 뒷받침



광주시는 금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고 지역 금형기업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금형인의 날’ 행사가 24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금형인의 날’ 행사는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적 악재에도 묵묵히 현업에 종사하는 지역 금형기업인의 협력 증진과 화합, 자긍심 고취를 위해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주최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경만 국회의원, 김영집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박화석 한국금형산업진흥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승현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의 특강,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의 금형인’에 조철연 (주)에스디엠 대표가, 우수 경영인에는 김교신 (주)세아인더스트 대표가 선정돼 수상했다. 금형산업 발전 유공자에는 김병호 (주)태광물메이스트 대표

와 신관선 (주)하남열처리 대표가 광주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문승현 전 총장은 ‘인공지능과 미래산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광주시와 한국금형산업진흥회는 지역 금형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하이테크금형센터, 공동물류센터, 공동활용장비 20여 종을 구축했다.

또 금형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자해 스마트금형 제조데이터활용 혁신기반 구축사업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금형산업은 광주 대표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산업으로써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지능화 뿌리공정기술과 더해져 지역 제조산업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4개월 연속 증가세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6~9월 광양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동기(57만TEU 처리) 대비 12% 증가한 64만TEU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23년 ‘컨’ 물동량 전년 대비 분기별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1분기의 경우 18.1%↓, 2분기 5.6%↓, 3분기 13.5%↑, 4분기 15.4%↑로 하반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공사에서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발로 뛰는 영업, 1개선사 1개항로 늘리기 운동, Y.E.S. Day 고객 최우선 경영, ‘컨’ 운영사 저렴한 임대료 및 장비 지원 등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년 새롭게 유치한 신규항로 7개, 그 중에서도 원양항로 2개(유럽, 중남미) 유치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3년 ‘컨’ 수출입 물동량 전년 대비 월별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8월의 경우 1만TEU 증가, 9월의 경우 2.6만TEU 증가하는 등 원양항로 2개 유치로 지역 수출입 물동량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광양만권경제청 베이징 등 투자유치 활동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우시와 베이징(北京) 지역의 e-모빌리티·이차전지 분야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이론형자동차협회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우시는 전기자전거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주요 생산기지로서 대표단은 중국 내 대표 전기자전거 기업인 야디(YADEA), 보도(BODO)를 방문하여 한국의 자유무역지역과 FTA를 활용한 제조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

뒤이어 이차전지 셀제조 기업인 LD그룹을 방문해 한국의 ESS용 LFP 배터리 셀 수요와 ESS 수출 제조 기지로서 광양만권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22일에는 베이징으로 이동해 민메탈스그룹과 중국 ESS 협회 방문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민메탈스그룹은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으로 금속 가공 및 소재분야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최근에는 이차전지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아트가,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현대차그룹 아트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세 달간 UNHQ와 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가 개최된 도시를 중심으로 총 57개국 8개 도시를 돌며 부산엑스포를 알렸다. /현대차그룹 제공

광주지역 6개 창업기업 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 수상

광주시, 내년 박람회 전시·마케팅·외국어발표자 등 지원

광주지역 6개 창업기업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가하는 광주지역 대표 혁신기업 3개사와 광주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3개사 등 지역기업 6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상 기업은 ▲ ㈜인디제이 ▲인트플로우㈜ ▲ ㈜다비다 ▲ ㈜펠스 ▲에코피스㈜ ▲ ㈜고스트페이스이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융합 전시회인 CES 개최를 앞두고 혁신제품 중 기술성·디자인·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CES 혁신상은 공신력이 높아 제품의 기술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의미가 남다르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역기업 13개사를 지난 8월 선정하고 혁신상 지원 자

문·역량 강화·마케팅 실무교육 등 해외진출과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광주시는 광주공동관과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며 지역기업의 전시를 도울 예정이다. 지역대학·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광주공동관에 외국어 발표자를 배치, 기업 홍보 자료와 지역인재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월 CES 2023에 광주 공동가전브랜드(GIEL)관을 운영, 8개 기업 14개 제품을 홍보했다. 참여기업 ㈜넵텍프런티어는 미국 바이러스엑스버스터사와 연간 10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권형안 기자

전남도 건설사업 기술 발전 모색...산·관·학 머리 맞대

건설산업기술 연찬회 개최...우수 신기술 공유유호규 국장



전남도가 ‘전남형 트램’과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 분야 산·관·학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신기술과 우수사례 공유했다.

전남도는 전남 나주중흥리조트에서 건설 분야 공무원, 학회·협회, 전남·광주지역 8개 대학 토목공학과

학생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한 연찬회(학문연구 모임)에선 ‘지역 건설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를 주제로 건설 분야 신기술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발전 방안

을 논의했다.

행사는 건설기술 능력 강화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박국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장의 ‘지방지역 도로관리 역량 강화 방안 고찰’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연찬회 문을 열었다. 이어 ‘열차하중에 의한 철도 교량의 동적 거동 분석 기술과 기준’, ‘자연재해 대비 항만의 리모넬링·최신 기술 개발 동향’, ‘기후 위기 시대, 물 관리 정책 방향’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전남도는 이번 연찬회에서 제시된 기반 시설의 안전관리와 이상기후에 대한 건설기술 대응 방안 등을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 호 기자

광주전남 차세대경영자협의회 출범

광주전남 차세대경영인 50여 명 참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24일 광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광주·전남 차세대경영자협의회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광주전남 지역 중견기업인과 예비승계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대회장에 이창호 남부산업(주) 대표가 선출됐다.

광주전남 차세대경영자협의회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1세대 경영인들의 고령화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와 향토장수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승계 지

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정책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기업인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의 23.8%가 6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은 2만 5000명을 초과한 상황으로 기업승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100년 이상 된 성공적인 장수기업들이 많은데, 이는 기업승계를 안정적 일차리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권형안 기자